

‘다종교 사회 공존 모범’ 주역

KCRP 회장 임기 마친 자승스님

‘하나되는 아시아’ ACRP총회 성공
범종교인 운동 ‘답게 살겠습니다’
성직자 교류, 재가신도까지 확대

한국 7대 종단을 이끌었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2월24일 2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 회장직을 김영주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에게 물려줬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으로 무탈하게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며 “한국 종교계의 대화와 화합, 나아가 상생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 온 KCRP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종교간 대화와 협력 기구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 2년 동안 총무원장 스님은 KCRP 대표회장으로서 종교 간 교류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펼쳐왔다. 전국 종교인화합대회를 비롯해 이웃종교스테이, 종교청년 평화캠프 등 종교간 평화와 화합을 위한 행사는 총무원장 스님의 적극적인 독려 하에 종교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유대하며 원만하게 진행됐다. 이같은 교류는 2014년 8월 아시아 각국 종교 지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국제종교행사인 ‘조화 속에 하나되는 아시아’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제8차 총회의 성공적 개최로 이어졌고, 대규모 행사를 잘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2015년 출범한 범종교인 운동 ‘답게 살겠습니다’는 성직자 간의 종교 간 교류와 소통을 재가신도까지 확대했다는 점에



2년 동안 KCRP 대표회장을 맡았던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2월24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KCRP 정기총회에서 김영주 목사에게 대표회장직을 물려줬다.

서 큰 호응을 받았다. 7대 종단 신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종교인답게’ ‘사회인답게’ 살며 자성과 참화운동을 전개해 공동체 정신을 되살리겠다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은 시작 6개월 만에 각 신도 단체를 비롯해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으로 전개됐다. 이는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종교가 한국사회 공통의 과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사이 좋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밖에도 지난해 11월 금강산에서 진행된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 교류사업’은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종교인들이 앞장서 남북 종교인 간의 교류를 이뤘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기도 했다. 박남수 천도교 교령은 “자승스님이 사랑과 봉사의 원칙으로 한국 종교의 다름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바탕으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풍토를 몸소 보여줬다”며 “같은 공동 대표로서 자승스님이 큰 뜻을 이룬 것 같다”고 감사의 뜻을

발했다.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 또한 “사회 화해와 통합, 인권 등 종교인으로서 깊게 고민하고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데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애를 많이 썼다”며 “총무원장 스님이 종교 간 협력을 통해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활동을 한 것에 대해 큰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CRP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이웃종교화합대회’ 개막식을 30주년 기념식과 연계해 실시하며 그간의 활동을 담은 30년사를 출간하는 한편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

KCRP는 지난 1965년 한국 종단 지도자들이 종교간 교류와 화합을 위해 대화모임을 가지면서 시작됐으며, 이 모임은 1986년 제3차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서울 총회를 계기로 국제종교기구와 유대관계를 갖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로 거듭났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올해 첫 의제는 ‘총무원장 선출제도’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페이스북에 ‘토론방’ 개설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이하 100인 대중공사)’의 올해 첫 의제는 ‘총무원장 선출제도’로 정해졌다. 1차 대중공사의 일차와 장소는 오는 3월31일 서울 불광사다. 조계종 100인 대중공사 집행위원장 일감스님은 지난 2월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확정된 금년 대중공사 의제를 발표했다. 출범식을 겸한 1차 대중공사에서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관해 논의하고 4~5월 지역 대중공사에서 추가로 여론을 수렴한 뒤 5월18일 2차 대중공사에서 최종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일감스님은 기자간담회에서 “대중의 주요 관심사인 총무원장 선출제도와 관련해 현재 직선제와 ‘엄화미소법’, 종단쇄신위원회의 안 등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대중공사가 기여할 것”이라고 의제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3차(8월25일)는 ‘종단화합과 개혁방안’, 4차(10월20일)는 이즈음 이슈로 부상한 ‘깨달음을 말한다’를 주제로 토론 마당이 펼쳐질 예정이다. 5차(11월24일)는 화합식이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100인 대중공사 사무국은 논의의 폭을 넓히기 위해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에 계정을 개설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종단협 사무처장 성공스님 임명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

처장에 진주 성전사 주지 성공스님(사진)이 임명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2월24일 신임 사무처장 성공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전 사무처장 스님이 친화력 있게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각 종단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화합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충실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공스님은 해인사승가대학 졸업 후 동국대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도성암선원, 팔공총림선원, 백련사 만덕선원 등에서 안거수행했으며 약전사, 운지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진주 성전사 주지를 맡고 있다.



홍다영 기자

“강제수용한 봉은사 토지 반환하라”

(옛 한전부지)

봉은사신도회 시청앞 피켓시위

환수 위한 첫 행동 돌입 ‘주목’

서울 봉은사가 정부와 서울시에 의해 편법적인 강제매각을 당한 옛 한전부지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행동에 들어갔다. 봉은사 신도회는 지난 2월24일 오전10시부터 서울시장 앞에서 ‘군사정권에 의해 강제수용된 봉은사 토지 반환’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봉은사 교무국장 화현스님을 비롯한 신도 10여 명이 참여했다.

신도회에 따르면, 1970년 당시 정부가 상공부 청사를 삼성동 일대로 이전한다며 10만 평

을 할당에 수용한 뒤 이를 환지정리해 막대한 정치자금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봉은사 주지가 배제된 채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상공부와 문공부는 이를 알고도 ‘불교재산관리법’을 위반해 매매 형식을 빌려 봉은사 토지를 강제수용했다. 신도회는 봉은사 토지의 강제매각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개발계획의 인허가 절차 중단을 촉구하며 매일 2시간 동안 시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조계종은 2월3일 한전부지환수위원회 출범시키고 한전부지 매각과정에 대한 부당한 매각과정에 대한 증언과 자료들을 수집하는 등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봉은사신도회는 ‘군사정권에 의해 강제수용된 봉은사 토지 반환’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사진은 2월24일부터 서울시장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켓시위 모습.

CGV도 인정한 국민영화



허정철 기자의
현장에서

hic@ibulgyo.com

지난 2월24일 개봉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귀향’이 실시간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국내 영화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미국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데드풀’과 누적관객 10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는 한국영화 ‘검사와전’ 등 대작을 제치고 저예산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예매율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제작단계부터 순탄치 않았다. 제작비 부족으로 10년 넘게 시나리오 단계에 머물러 있다 편입으로 지난해 겨우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개봉일로 잡았지만, 주요 멀티플렉스에서관을 열어주지 않아 개봉 3일전까지 제작사가 확보한 개봉관은 50여 곳에 불과했다. 개봉 후 3~4일도 버티기 힘든 ‘병풍 영화’ 신세가 될 거라는 흉흉한 말까지 돌았다.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 영화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반전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못 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전국 주요 멀티플렉스에서 ‘귀향’에 관을 열어주며 예매를 받았지만, 국내 업계 1위 CGV만은 달랐다. ‘데드풀’ ‘주토피아’ ‘동주’ ‘좋아해줘’를 계속 상영하며 유독 ‘귀향’을 외면했다. 온라인에서 ‘CGV는 귀향을 안 트는 건가, 못 트는 건가’ 등 네티즌들로부터 불만의 글들이 오르기 시작했고, 영화도 연일 예매율 1위에 오른 결과로 결국 CGV도 22일 오후부터 문을 열면서 이 영화는 또다시 ‘작은 기적’을 이뤄냈다.

그럼에도 대중의 뜨거운 관심이 흥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낙관할 수 없다. 경쟁이 치열한 영화계에서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상영관 수도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꼭 ‘불지갑독이’ 만든 영화라서가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가치는 물론 콘텐츠로서도 작품성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스님과 불자들이 에게도 추천할 만한 영화다. 앞으로 반복 인기에 그치지 않고 불교계 안팎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영화 ‘길 위에서’,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감동을 이어가길 기대해 본다.

▶관련기사 16면

지혜와
평화의
길

명상아카데미
대강좌

명상은 행복으로
가는 큰 길입니다.

제1기
수강생 모집

한국명상지도자협회
Korea Association of Meditation Teacher

명상의 효과

심신
안정과
건강증진

집중력,
창의력
개발

수용과
공감능력
향상

소통과
관계향상

자유와
행복

일시

2016년 3월 9일 ~ 5월 21일 (매주 수요일, 토요일 강의)
오후 2시 ~ 5시 30분

장소

행복선원 매주(수) / 02)732-9500
금강선원 매주(토) / 02)445-8484

모집인원

수요일반 00명 / 토요일반 00명

참가비

1차 전반기 35만원 / 2차 후반기 35만원 /
사전등록 33만원 / 12차 일시납부 60만원

개좌번호

신한은행 110-389-017340 김형록

등록

사전등록 2016년 2월 15일 ~ 3월 4일(금) 협회 홈페이지
현장등록 2016년 3월 9일(수), 12일(토)

문의

02)953-5307 www.kamto.net

강좌 일정표

횟수	날 짜	강좌명	강사
1	3. 9(수) 3. 12(토)	개강식	
		① 명상! 어떻게 할 것인가?	용타스님
		② 경전 속에 나타난 위빠사나 수행법 오리엔테이션	해거스님 인경스님
2	3. 16(수) 3. 19(토)	① 명상이란 무엇인가? 명상의 이해	김재성교수
		②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 - 1	붓다락기따스님
3	3. 23(수) 3. 26(토)	① 아나빠나삿띠 (위빠사나 호흡관찰법)	김열권원장
		② 호흡명상의 실제와 이론 - 1	
4	3. 30(수) 4. 2(토)	마음관찰과 호흡관찰	각산스님
		① 가피명상	적경스님
5	4. 6(수) 4. 9(토)	② 통합표현매체명상	선업스님
		① 자비명상	마가스님
6	4. 13(수) 4. 16(토)	② 깨어있는 마음 평화로운 죽음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 명상)	해봉오원철원장
		① 세 가지 모습의 자아	명법스님
7	4. 20(수) 4. 23(토)	② 자비차선의 차 명상	지운스님
		① 하트스마일 명상의 원리와 행법	미산스님
8	4. 27(수) 4. 30(토)	② 생활 속의 참선 수행 I	김용환교수
		① 성철 참선프로그램 - 영원한 자유의 길	박희송교수
9	5. 4(수) 5. 7(토)	② 스트레스 다스리기	월호스님
		① 새로운 물결 명상상담의 대두배경	인경스님
10	5. 11(수) 5. 21(토)	② 명상심리치료	서광스님
		① 마음챙김 혁명 : MBSR을 중심으로	안희영교수
		② ‘명상아카데미 대강좌’ 질의응답	인경스님